

추경호 오늘 영장심사... 與 “구속 마땅” 野 “외압 말라”

민주 “내란 중요업무 수행 드러나... 법원 상식적 판단 기대”
국힘 “기각 땀 여권서 개발 동원... 사법부 총공격 나설 것”
구속 땀 국힘 ‘정당 해산’ 힘 받아... 내란 청산 급류 예고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심사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여야가 벌여온 ‘내란 몰이 vs 내란 청산’ 총돌의 균형추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본 후 12·3비상계엄 관련 사과 메시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표결을 방해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업무 수행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윤석열이 계엄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지시하던 그 시점에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직접 통화하며 본회의장 집결을 방해했던 것”이라며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석해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은 심각하게 제약

됐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의 태도다. 같은 당 의원들의 직접 방해 증언에도 당 지도부는 사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 시도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저지른 반헌법적 계엄 시도에 대해 국회 내에서 누가 어떻게 협조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국민의힘과 내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일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추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 자료를 다수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희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의원들을 보내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나 그 부분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업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있어서 현재 드러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인 당사로 모이게 했고 실제로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 당시에 통화를 했는데 한 총리가 사실상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의 텔레그램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의 SNS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증거에 의해서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상당수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

으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인데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발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연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제가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고 기각된다면 사법부마저도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는 예언한 바가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 예언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

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붓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정 대표가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 잘못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압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 대표 말대로라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잘못 기각되면 사법부 잘못이라면 결국 정청래가 직접 재판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 여부와 12·3 내란 메시지 내용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1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더뷰’에 출연해 “12월 3일 새벽, 12월 2일 밤늦게 추경호 영장 (결과가) 나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법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달라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당내에서 사과 필요성에 나오는 데 대해 “영장 발부 여부와 다 관련이 있다”며 “사과의 수위, 사과의 방법, 사과의 정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 라고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 씌우고 있는데 여기에 털거덕 잘못 이야기를 하면 그 프레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李대통령 지지율 54.8%, 4주째 답보... 부울경 8%p↓ 눈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하며 4주째 50% 중반대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54.8%로 전주 대비 1.1%p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40.7%로, 0.2%p 소폭 상승하며, 긍정-부정 격차는 14.1%p로 축소됐다. ‘잘 모름’은 4.5%였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주 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긍정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여론이 악화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 확산 영향에 여론 악화
민주 45.6%, 5주 만에 하락... 국힘 37.4%, 2.6%p↑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최고치와 4연속 금리 동결로 고환율·고금리 체감이 악화되면서 국정 지지도도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8.0%p 급락하며 45.1%를 기록했다. 또 대전·세종·충청은 2.9%p 하락한 53.4%, 대구·경북은 1.2%p 하락한 43.2%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경기 는 1.2%p 상승하며 58.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4.2%p↓, 51.2%), 40대(2.4%p↓, 64.8%), 20대(1.2%p↓, 39.1%)에서 하락했고, 50대(1.4%p↑, 64.3%)에서는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5.2%p 하락한 80.8%, 보수층에서 1.0%p 하락한 27.0%를 나타냈고, 중도층에서는 3.3%p 증가한 59.8%를 기록했다.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9%p 하락한 45.6%를 기록, 5주 만에 하락했다.

당내에서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과 친명계 내부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당내 혼란이 심화되면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지지율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2.6%p 상승한 37.4%를 기록했다. 특검의 대통령 기소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 야당의 사법 공세에 대한 반발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과 일부 보수층에서 결집의 계기로 작용하며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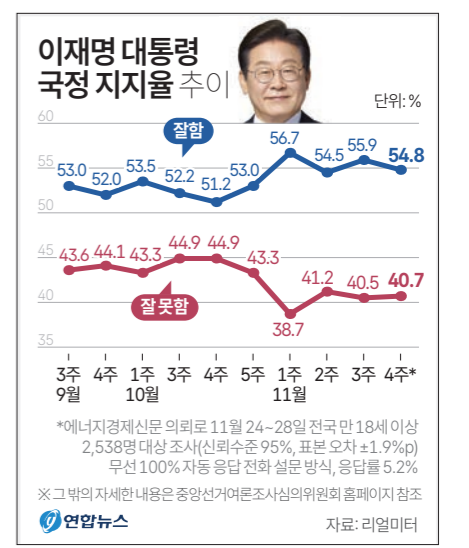
개혁당당은 0.3%p 낮아진 3.5%, 조국혁신당은 0.2%p 높아진 3.1%, 진보당은 0.3%p 높아진 1.4%, 기타 정당은 0.2%p 낮아진 1.6%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p

감소한 7.3%로 조사됐다.

민주당 권역별 지지도 추이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7.2%p 급락했고, 대구·경북 4.3%p, 광주·전라 4.2%p, 서울 2.6%p, 인천·경기 2.3%p 각각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5.2%p 올랐다. 보수층에서는 8.2%p 급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4%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7.2%p↑), 대구·경북(6.8%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2.1%p↑)에서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5.3%p↓)에서는 하락했다. 보수층(3.6%p↑)과 진보층(3.5%p↑)에서 모두 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년들에 대한 시대소설

58세 신에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